

# 5월항쟁 흔적 복원 논란 1년째 표류 민주평화교류원 문제 빨리 해결해야

문화전당  
개관 1년

## ㉔ 해결해야 할 과제

### 전당장 선임 등 조직 안정화 효율적 조직 운영 체계 시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주년이 다 됐음에도 100%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핵심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민평)이 광주항쟁 관련 흔적 복원 논란으로 1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민평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평은 옛 전남도청 본관에 있던 5월 항쟁 흔적을 복원해야 한다는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의 반발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현재 70여 일째 문화전당에서 농성 중인 5월 단체 등은 전당 측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훼손한 옛 전남도청 본관 1층 상강실(방송실)과 외벽 총탄 자국 등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전당측은 개관 장기지연,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민평 논란이 장기화함에 따라 광주의 유산인 광주항쟁 콘텐츠를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옛 도청별관에 개설하려던 유네스코 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위원회 사무국 개설도 지연되고 있다.

방선구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민주평화교류원을 이른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전당 조직 안정화도 현안 가운데 하나다. 문화전당 업무를 총괄하는 전당장은 1년째 장기 공석으로 남아 있다. 문화부는 올 3월과 6월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당장 선임을 무산시킨 데 이어 현재 3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최소 3개월 걸리는 공모 절차를 고려하면 올 안으로 선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출대와 무관심의 방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화전당측은 지난해 말 5개월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는 조직운영 체계를 손질했다. 각 원별로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교류협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의 농성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민평). 현수막이 걸린 공간은 민평에 포함된 옛 도청 별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5개월을 앞둔 예술 감독제를 없애고 사업·기능중심으로 부서를 개편한 것이다. 공연사업본부, 전시사업본부, 전시사업 본부가 신설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특정 본부장이 5개월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를 도맡는 바람에 예술국장, 어린이 문화원 등은 원별 개성과 특성,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사업중심으로 부서를 개편하다보니 예술적 기능이 상쇄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지난 22일 열린 문화전당 개관 1주년 토론회에서는 이런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

문화전당 조직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문화전당은 문화부 소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이 조직에서 일부 업무를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이 사실상 공동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굳어지면서 옥상옥 논란은 물론 조직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실상 문화전당에 두 개 조직이 있음에도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조직은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으로 출범한 기구로 애초부터 조직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도 2개 조직을 운용할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김기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화전당은 책임성과 창의성을 갖춘 내부의 운영 동력을 형성하고 기관들간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조직기반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 외에도 문화전당의 중장기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앞으로 3년5개월(2020년4월) 후면 문화전당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이 도맡게 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부칙에는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 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문화전당 개관 1주년 ‘DREAM NIGHT’

### 24~27일 아시아문화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아문화광장에서 개관1주년 기념 ‘야외광장 문화행사 DREAM NIGHT’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술가들이 참여한 ‘소망나무 소망풍경’, ‘이글루 프로젝트’를 비롯해 야외콘서트, 스트리트퍼포먼스, 푸드트럭·플리마켓 등으로 진행된다.

‘소망나무, 소망풍경’은 성동훈 작가의 작품으로, 높이 7m 무게 2.5t에 이르는 대형 조형물에 시민들이 소망엽서를 함께 전시한다. 김기라 작가의 ‘이글루 프로젝트’는 관람객들이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작업으로, 폭 8m, 높이 5m 규모의 원형 이글루 모양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아시아문화광장을 중심으로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난장이 펼쳐진다. 맛과 디자인

에 민감한 청년세대를 위해 인기 높은 푸드트럭과 플리마켓 셀러들이 대거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야외음악콘서트와 스트리트퍼포먼스도 상시 공연된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위아더나잇, 피터팬컴플렉스, 남버원코리아, 오리엔탈쇼커스 등 인기밴드들의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문화전당은 개관 1주년을 계기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문화장조원 전시, 어린이 체험관 관람료는 1000원으로 특별 할인된다. 문의 1899-5566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4대의 바이올린... 4배의 감동



### 김재영·김영옥·박지운·김다미 ‘4Violins’ 공연

#### 내달 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연주자 이름만으로도 민음이 간다.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꾸미는 무대다.

국내 실내악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노부스 콰르텟’의 김재영과 김영옥,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페이드 라 루아 오케스트라’ 악장이자 ‘트리오 제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운, 루체른 페스티벌 데뷔 리사이틀 전석 매진을 기록한 김다미가 한 무대에서는 ‘4Violins’ 공연이 열린다. 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공연은 두 대의 바이올린, 네 대의 바이올린, 현악 앙상블 협연 등 다양한 구성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무대다. 특히 편곡된 작품이 아닌, 오리지널 곡들을 엄선해 레퍼토리를 꾸렸다.

연주 곡목은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 텔레만과 ‘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콘체르토 라 장조’, 19세기 유럽을 주름잡은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베리오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1번’(김재영·박지운), 프로코피예프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작품56’(김다미·김영옥)이다.

눈길을 끄는 작품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다. 화려한 색채가 인상적인 이 작품은 이번 공연을 위해 세종솔리스트스 바이올리니스트 양지인, 디토오케스트라 수석 더블베이스 배기태 등으로 구성된 ‘현악앙상블 M’과 함께 4명의 연주자가 한 악장씩 돌아가며 연주한다. 12월 3일에는 서울 LG아트센터에서도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티켓 가격 일반 4만원, 학생 2만원.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시민자유대학, 내달 1일 겨울학기 개강

세계시민적 관점으로 학문과 예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시민자유대학(학장 장복동)이 12월 1일 겨울학기를 개강한다.

이번 겨울학기는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10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미학·정신의학·한국미술사·문학·페미니즘·고전읽기 과목을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12월 5일 개강)에는 최유준 전남대교수가 나서 ‘음악하기’를 주제로 음악적 실천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소영 전남대교수는 화요일마다 ‘한국 미술 산책’ 강좌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미술에 대해 소개한다. 정찬영 새미래병원장은 수요일마다 트라우마와 성격을 키워드로 시민

들과 정신의학적 대화를 나눈다. 목요일에는 유희석 전남대 교수가 ‘문학으로 미국을 읽다’를, 토요일에는 김현 전남대 교수가 ‘철학하는 페미니즘’ 강좌를 연다.

오일과 금요일에는 ‘동서양 고전읽기’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학기에는 노자 ‘도덕경’과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를 강독한다. ‘도덕경’은 이경환 전남대 교수가 매주 화요일에, ‘윤리 형이상학 정초’는 이경배 전남대 교수가 매주 금요일에 진행한다.

수강료 1과목당 13만원. 강의 장소 홈페이지(cafe.daum.net/volkshochschule) 참조. 신청·문의 062-961-111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싱! 퀸**

CHANNEL 매주 목요일 밤11시

이수진, 강성연, 김희철, 문희준, 최성국, 김태우, 한석준